전남산 친환경농산물, 서울 학교급식 납품 '빨간불'

서울시 권장비율 50%로 낮추고 계약방법 변경
道, 관계자 초청 체험행사 늘리고 마케팅 강화

서울시가 친환경 농산물 권장비율을 낮추고 계약방법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의 납품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학기부터 초중학교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 축소, 납품 계약방법 변경 등을 결정했다.

서울시내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권장 비율은 기존 각 70%와 60% 이상에서 모두 50%로 축소됐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총괄하던 학교급식 업무가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겨지면서 식재료 계약방식도 대폭 바뀌었다. 학교 단위 수의계약 기준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진 대신 민간 업체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1000만~5000만원까지는 지정 업체만 참여하는 견적 입찰을,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 업체 선정에 학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당장 권장비율이 준만큼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서울 입성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점유율 50%를 넘는 친환경 쌀은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과채류는 경쟁이 불가피해 납품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 등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인 대신 나머지는 해당 시군이 충당하도록 해 친환경 식재료 수요가 줄 우려가 높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견적 입찰이 가능한 도내 업체 발굴에 나서는 한편 도와 시군에 납품 전담반(110명)을 편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교장과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체험행사도 지난해 3차례에서 올해는 6차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실적은 서울지역은 1293개교에 쌀 347억원, 과채류 310억원이며 경기지역은 358개교에 쌀 158억원, 과채류 96억원 등이다.

점유율은 서울지역이 쌀은 54%, 과채류는 51%로 절반 이상을 전남산 식재료가 차지했으며 경기지역은 쌀 16%, 과채류 22%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 1번지, 전남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공문 발송, 정부 부처의 구매 확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강진, 교부세 증가율 도내 1위

작년 1406억… 5.6% 늘어

강진군이 지난해 도내 22개 시군 중 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해 140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 전년(1331억원) 대비 5.6%(76억원)가 늘었다.

이는 도내 평균 증가율 1.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5%대를 넘어 최고를 기록했다.

최고 기록의 비결은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관리 등을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에서 비롯됐다.

군청 실과 관계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결과 경로당 숫자, 교통 관련 현황 통계, 소공원 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유가보조금 교부 자료,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 자료 등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평가에서 '상수도 시설관리 시스템개선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교부세 2억원을 보탠 것도 힘이 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살림살이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주는 돈으로 해당 지자체가 용도를 임의로 책정해 사용할 수 있다. 도내 시군 일반회계 예산의 45~5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은 중앙 정부에 열악한 재정형편의 실상을 설득력있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성과를 거뒀다. 세계모란공원 조성 5억원, 다산수련원 시설 개보수 사업 5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6억원, 재해위험 하천인 신전면 희목천 정비 사업 8억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3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내는 실적을 거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지자체 공동기숙사 3월 8일 첫 입소 나주출신 40명 선발

나주시 등 전국 8개 지자체와 서울시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지자체 공동기숙사〈조감도〉'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첫 입소준비에 분주하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지자체 공동기숙사'가 오는 3월 8일 첫 입소를 하게 된다.

기숙사 첫 입소자는 나주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부모가 나주에서 2년 이상 실재 거주한 가족의 학생 중 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4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지자체 공동기숙사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대여하고 나주, 고흥, 안동 등 8개 지자체가 20억원씩을 투자해 총공사비 181억원을 들여 지었다. 372명의 입소 규모로 30년간 사용 조건이다.

입사생은 12만원 내외의 최소 생활비만 부담하게 되고, 기숙사 운영비는 각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봄의 전령사' 복수초 황금빛 꽃망울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지난 16일 완도수목원에서 황금빛 꽃망울을 터뜨렸다.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빠른 것으로,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에서는 매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관찰할 수 있다. 〈완도수목원 제공〉

나주미래산단 40% 축소

180만㎡ 내년 준공

전남도는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주미래산단은 지난 2008년 지정 후 투자자 자금난 등으로 5년간 사업이 표류했으나 지난해 7월 민간투자와 관련한 불합리한 이자율과 수수료를 개선해 특수목적법인(SPC)이 구성됐다.

이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당초 300만㎡에 달했던 사업구역을 180만㎡로 축소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산단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했다.

미래산단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는 3840억원, 직·간접적 고용유발효과는 2100명으로 중부권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산단 준공에 맞춰 2015년까지 177억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입주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는 2016년까지 사업비 168억원을 투입, 폐수처리장을 조성하는 등 미래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해 준공 전 분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광, 40년만에 부채 제로시대 맞는다

지방채 16억 상환… 전남도내 완도군 이어 두번째

영광군이 40년만에 부채 제로 시대를 맞는다. 전국 군 단위에서는 10번째, 전남에서는 완도군에 이어 2번째 성과다.

영광군은 19일 "지방채 16억원 상환을 마지막으로 지방채를 모두 갚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일반채무는 2007년까지 196억원이었다. 법성항 매립지 조성금 598억원, 한수원의 지역개발세 환급금 57억원 등 별도 채무는 65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6년 동안 채무를 모두 상환, 부채 상환율이 도내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광군의 채무는 1970년대 이후 계속 이어져 왔으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빚이 없는 지자체로 거듭났다.

영광군은 여기에 법성항 매립지 토지자산 360억원, 기금 추가 조성 200억원 등 유동성 자산도 추가 비축했다.

최근 6년간 부채 상환으로 매년 150억원을 투입하는 부담을 덜게 되면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영광군은 그동안 각종 선심성 행사를 축소·폐지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을 과감히 제외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도비 지원액도 높였다. 국·도비 지원금은 2007년 1680억원에서 2013년 285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영광군의 2012년 예산 결산액도 일반회계가 3448억원으로 2007년 대비 60% 상승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복지시설 기부금 전달 전남도주부명예기자단(회장 장은영)은 최근 목포, 무안, 구례, 해남, 담양 등 5개 지역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지난해 12월 '주부명예기자 사랑나눔 자선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 제공〉